

‘여수문화재단’ 2025년 설립 가시화

여수시, 최종보고회 개최
2본부·5팀·29명 내외 구성
창작예술 지원·콘텐츠 발굴 등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7일 여수시청에서 열렸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견인할 재단의 명칭이 ‘여수문화재단’으로 확정되는 등 재단설립이 가시화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7일 문화예술위원회와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시 공무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재단의 예산, 인력, 조직구성, 담당업무 등 핵심 사항과 향후 5년 동안의 발전 전략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재단의 공식 명칭은 ‘여수문화재단’으로 결정됐다. 재단 조직은 문화경영본부·예술축제본부의 2본부와 경영기획팀, 문화기획팀, 예술진흥팀, 축제지원팀, 문화예술교육 지원팀 5팀, 직원 29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된다.

여수문화재단은 여수형 창작예술 지원, 기획공연 개발, 문화예술 교육 시스템 구축, 지역특화콘텐츠

츠 발굴, 지역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시민회관 공연 운영 등의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수시는 내년에 재단 설립 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설립준비팀 구성, 조례안 제정, 재단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직원 채용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문화도시 여수’ 도약의 여수문화재단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적 건담회 추진 등을 통해 재단 설립의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과 함께 재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청정 고흥 김 본격 생산...생김 위판

120kg당 10만~21만원선 거래...지난해보다 높아

고흥의 김 주산지인 발표항에서 ‘생김 위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고흥군은 지난 7일 도화면 발표위판장에서 ‘2024년산 생김 위판장 개장식’을 열고 올해 청정 고흥 김의 생산을 알렸다고 10일 밝혔다.

고흥 물김은 청정해역 1만338ha의 10만3380책(말뚝)에서 생산되고 있다.

고흥산 물김은 지난달 23일 도화면 발표위판장에서 올해 처음 출하됐다.

위판 가격은 120kg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1만원선에서 거래됐다.

고흥군 측은 올해 위판량과 위판 금액이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채취가 늦어질 우려가 있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물김 위판장 개장식을 찾아 김 양식 어업인을 격려하고 고소득을 기원했다.

공 군수는 “고흥산 김은 맛과 향이 뛰어나 소비자의 미각을 사로잡고 있고 중국과 일본 등에 우리 군 주요 수출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인에게 인기를 끌 수 있도록 김 수출 판로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김 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김 생산 시기 동안 병해 예방, 김 양식 시설 관리 및 불법 시설물 단속·철거 등 행정지원과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고흥산 물김이 본격적으로 위판되기 시작했다. 김 위판이 열리는 발표항. <고흥군 제공>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전략환경평가 경과 보고

12~26일 누리집 등서 공개

순천시는 지난 7일 진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를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순천시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공청회에서 환경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제시된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게시한다.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지난 7일 팔마체육관 올림피아기념관 교육장에서 열었다.

공청회에는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의견 진술자로 환경, 시설, 정책 등 각 분야의 전

문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사, 입지선정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이 참여했다.

공청회는 조점수 순천시 청소자원화과정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보고로 시작했다.

공람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제출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의견 진술자들의 의견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주민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공청회가 마무리됐다.

순천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시민들의 환경적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재사용, 재생이용이 불가능한 타는 폐기물에 대해

서 연소를 통해 매립량·침출수 농도 감소로 악취 발생 최소화,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있어 주민 보건 환경 향상과 환경 오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장대환 박사(전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대기관리부장)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으로, 환경질 향상을 위해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부 기관에서 관리하며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 오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환경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맞춤 지원 성과

7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광양 지역 결혼이민자 7명이 광양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과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광양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반을 무료로 개설해 20여회 42시간에 걸쳐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기본 요양보호 지식부터 노년기 특성 및 요양보호 관련 제도에 이르기까

지 전문가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취득이 가능하다.

전문 용어 및 한국어와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이어서 이번 자격증 취득은 의미가 크다.

최소숙 광양시 여성가족과장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전문 직업인으로서 당당하게 사회 활동하기를 바란다”며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격증 취득 교육 및 취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 ...행안부 인센티브 확보

올 하반기 25억 등 52억

보성군이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ZERO)를 달성해 내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는 전국 700여 건, 전남 407건 등 교부세 감액 대상을 심의 중이다.

보성군은 민선 7기에 이어 8기에도 단 한 건도 감액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보성군은 2024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법령위반 경비지출, 수입 징수 태만, 예산 편성 부적정 등의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보성군은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25억원을 확보하면서 행정안전부 2023년도 특별교부세 총 52억원을 확보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감액은 지자체의 재정 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감액 기준을 숙지해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0일까지 999명

구례군이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2024년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999명을 모집한다.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억 증액된 36억2770만원으로 편성됐다.

구례지역 읍·면사무소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위탁 선정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구례군 지회 등이 999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활동은 공익활동형(900명), 사회 서비스형

(57명), 시장형(42명) 등 3개 유형으로 나뉜다.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월 30시간 활동하며 총 29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사회 서비스형은 하루 3시간, 월 60시간 활동하고 63만4000원(주휴수당 별도)을 받는다.

시장형 사업단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25만원의 활동비를 주고 사업 수익금도 별도로 분배한다.

구례군은 내년 1월 초 해당 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